

# 추락사고 1년...활용방안 못찾는 여수 거북선 조형물

### 부상자들 보상문제 마무리 안돼 이달부터 안전성 검토 용역 여주시, 재개관·이전 놓고 고심

여수 이순신광장 거북선 조형물이 관람객 추락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일 이순신광장에 있는 전라좌수영 거북선 조형물 계단이 파손돼 관람객 7명이 3m 아래로 추락하면서 5명이 다

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는 길이 30m, 폭 10m의 거북선에 오르는 계단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무너진 계단은 관광객들이 주로 바다를 바라보거나 사진을 찍는 곳이다. 사고 이후 여수시는 자체 사고 대책반을 꾸려 팀장급 전담 직원을 병원에 보내 부상자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도 여수시 등과 함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야영장 등 관광시설 50곳의 안전 점검을 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거북선 조형

물은 여전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는 추락 사고를 당한 부상자들과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다른 장소로 옮기자는 의견이 나오자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거북선 전시와 안전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 8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개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선소 테마정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 거북선을 선소 인근으로 이전해 전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거북선 조형물은 2014년 2월 26억원을 들여 이순신광장에 설치됐다. 길이 26.24m, 높이 6.56m, 폭 10.62m 크기로, 배 내부에는 밀랍 인형과 무기류, 체험복 등이 전시되고 있다. 해마다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여수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거북선 조형물을 선소로 옮기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며 "차지 지역 간 갈등도 유발할 수 있어 안전성 검토 결과를 보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만원으로 집짓기' 나눔 캠페인 순천시·초록우산 업무 협약



순천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순천사랑 아이사랑 만원으로 집짓기 나눔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만원으로 집짓기'는 가정경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만원으로 집짓기 나눔 캠페인'을 통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기부금 4000만원을 모아 외서면 조순가정 주거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서면 조순가정은 재래식 화장실과 보일러가 아닌 아궁이불을 사용하고 있다. 낡고 오래된 기와 지붕은 장마로 인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어 주거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빈곤아동의 주거 지원을 계기로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본부장은 "순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의 아동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원으로 집짓기'에 참여와 동참을 원하시는 시민은 순천시 여성가족과 희망복지지원팀이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도시청년들의 100일간 곡성살이

### '청춘작당' 시즌2 참여자 모집

곡성군이 오는 19일까지 도시청년 곡성 살기 프로젝트 '청춘작당 시즌2' 참여자를 모집한다. 8월 곡성군에 따르면 청춘작당은 곡성군의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1기를 운영했다. 도시청년 30명이 100일간 곡성에서 살며 농촌체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시즌1에 참여한 청년들은 농촌체험과 함께 지역 청년 농·창업자들과 다양한 협업을 펼쳤다. 올해는 인터뷰 등을 거쳐 참가자를 선발하고, 8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0일간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발

전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100일 중 초기 20일은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한박자 쉬면서 자신과 곡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50일은 지역 청년농·창업자들과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마지막 30일은 팀 프로젝트의 성과와 곡성에서 100일 동안 지내온 기록을 정리해 전시회를 개최한 후 곡성에 정착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 대상은 곡성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청춘작당 홈페이지(https://springground.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춘작당을 통해 치열한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느리지만 씩씩 있는 곡성에서 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곡성군이 오는 19일까지 도시청년 곡성살기 프로젝트 '청춘작당 시즌2'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청춘작당 시즌1 참여자들. <곡성군 제공> "청춘작당 참여 후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청년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2022년 개관 여수시립박물관 어떻게 전시할까

### 이순신공원에 6300㎡ 규모 건립 전문가 초청 11일 학술세미나 전시 구성·유물 수집 등 논의

여수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여수시립박물관 전시 및 유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박물관 전문가를 초청해 전시 구성과 유물수집에 대해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 전원이 전·현직 박물관 종사자로 박물관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크게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립나주박물관 윤준균 학예연구실장이 '현대 박물관의 전시와 변화'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여주박물관장을 지낸 구본만 여주시 문화재팀장은 여주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박물관의 상설전시 구성"을, 문체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 장재근 학예연구사(전 국립광주박물관 유물담당)는 '유물수집 및 수장고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김중대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위철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신형석 울산대국립박물관, 엄경화 대한민국의사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영관 충북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전개한다. 청중 질의에 대한 발표자 응답시간도 마련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여수박물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면, 이번 세미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자리"라며 "세미나 결과는 향후 박물관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이순신공원 일원에 280억원을 들여 전체면적 6300㎡ 규모로 들어서며,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곡성 월봉습지서 멸종 위기 꼬마잠자리 올해 첫 관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꼬마잠자리'가 곡성 월봉습지에서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꼬마잠자리는 월봉 습지에서 서식하고 있다. 자란 성충의 크기가 50원짜리 동전크기만한 1.5~1.7cm밖에 되지 않는데, 10cm가량인 국내에서 가장 큰 장수잠자리와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개체 수가 줄어 쉽게 접하기 어려워졌다. 월봉습지는 휴경기 논이 습지로 변한 곳으로, 꼬마잠자리·수달·원앙·황조롱이·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 동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곡성군은 기후변화 등으로 식생이 달라져 꼬마잠자리·물방개 서식지도 생태적 기능 저하가 우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인 꼬마잠자리가 올해 처음으로 곡성 월봉습지에서 관찰됐다. <곡성군 제공> 되자 서식환경 개선과 복원을 추진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습지 생태계를 복원하고 꼬마잠자리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월봉 습지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광양 시립도서관·경로당 운영 재개

광양시는 '코로나19'로 휴관 중이던 시립도서관과 모든 경로당의 문을 열어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광양시는 경로당 운영 재개에 앞서 지역 내 324개소 경로당에 마스크 2만4852매와 비접촉 체온계 324개를 배부하고, 경로당 내·외부 청소와 일제 방역을 실시했다. 광양시는 경로당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광양노인복지관과 중마노인복지관은 오는 15일부터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시립중앙도서관과 희망·용강도서관도 개관했다. 한 달간 부분 개관을 통해 방역체계 점검을 마치고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각 도서관마다 이용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 전 발열 검사와 방문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중마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8월까지 휴관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공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